

34살 5·18 ... 올해도 서럽다

지방선거에 치인 5·18

‘선거에 밀려 부실한 콘텐츠로 덧칠한 광주만의 초라한 5·18 34주년 기념행사가 될 지 모른다.’

올해로 34주년을 맞는 5·18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기념행사위원회가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현재까지로는 불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광배하다. 국민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5·18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알리

고 계승하기 위한 ‘전국화’와 ‘세계화’는 커녕, 왜곡하고 비하하는 세력들의 바람대로 국민 기억 속에서 잊혀져 초라한 지역 행사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선거에 밀린 5·18 34주년 기념행사=기념행사위원회는 예년과 차별화된 행사를 기획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들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시비에 5·18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알리

색을 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이들 상당수가 작·간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서다.

요컨대 덮친 격으로 그동안 예산 지원을 해오던 공공기관 사이에서 4월 중순부터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설도 퍼져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행사위원회가 올 해 사업을 위해

확보한 4억 8200만원 중 광주시·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보훈청의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정해진 사업에 지정된 예산으로 다른 행사 기획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예산은 없다는 얘기다.

◇국가 기념일 맞나? 광주만의 5·18=지난해 5·18 기념행사는 광주·전남 외에 대전·충남·대구·경북에서 치러졌다. 정부 예산이나 해당 자치

예산확보 어려움 ... 부실한 콘텐츠 덧칠 우려 지방선거 선거법 시비에 보조금 중단설도 전국화·세계화 커녕 초라한 지역행사 불보듯

단체가 아닌, 광주시 예산으로 열린 행사였다.

5·18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 기념일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그나마 이웃 사촌이나 다름없는 전남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조차 손으로 꼽을 지경이다. 자체단체들의 무관심으로 매년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부실한 행사 불보듯=광주 금남로에서 열렸던 5·18 기념행사가 썰렁

하게 치러진 지 오래다. 금남로 일대가 시민들로 가득 찼던 5·18 기념행사는 오래전 얘기일 뿐이다.

매년 똑같은 판박이식 행사, 5·18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생생내기상’ 행사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부실한 행사는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늑장 예산 지원 및 자치단체의 관심 저조가 한몫을 했다.

5월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위해서는 미리 확보한 사업 예산 범

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참신한 행사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맞춰 질속으로 진행되면서 부실한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도 사업비 확보가 이뤄지지 못해 행사 기획에 참여키로 했던 작가들 사이에서는 작품 제작 거부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34주년 행사와 관계자는 “전남지역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대부분 ‘광주 행사가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느냐’라는 말이 나온다”며 “5·18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횡단보도 사망사고 운전자 법정구속

광주지법,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경중 ... 유족과 합의 불구 이례적 처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낸 여성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기소 전 이미 합의해 피해자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경중을 물린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해 운전자인 송모(여·40)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7시 54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 교차로에서 시속 50km로 신호를 위반

하고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김모(8)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신호까지 위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 가족에게 돌아킬 수 없는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송씨가 지난 2010년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상습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재판부가 이

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송씨가 남편과 별거 중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아이 셋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업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경중을 물려 다시는 전혀 과실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등의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화 여수공장, 폭발 원인 조사 중 또 폭발

국과수 직원·경찰 부상

일주일 전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나면서 현장 감식 중이던 국과수·경찰 직원이 부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감식분야의 베테랑들이었지만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벌인데다, 사고 현장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신월동에 위치한 한화 여수공장 습상유치고에서 소규모 폭발이 일어나 김모(52)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도(52)실장과 여수경찰서 과학수사팀 임모

(42) 경사가 얼굴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김실장은 얼굴에 돌 파편과 모래 등이 튀면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오전 11시50분께 이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국과수와 경찰 감식을 의뢰했었다. 김 실장 등은 지난 11일부터 현장 조사에 투입돼 이날은 현장에서 폭발 뒤 남은 시료를 채취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습상유치고(높이 25m·높이 3m)는 펄 형태의 기폭제를 보관하는 장소로, 기폭제는 보통 정전기 제어 봉

투에 담겨 물과 알코올이 혼합된 특수 용액에 보관해야 할 정도로 민감하고, 위험한 물질이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 착용해야 하는 방호복조차 입지 않은 채 감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발 원인조사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선 폭발로 습상유치고가 형태도 많이 파손됐던 점을 들어 현장을 보존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습상유치고에서 폭발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신문 배달 간 사이 ... 오토바이에서 신문 훔친 60대 경찰서행

○신문 배달원이 배달을 간 사이 오토바이에 실린 수백 부의 신문을 몰래 가져다가 고물상에 팔아넘긴 60대 남성이 경찰서행

○~12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문모(60)씨는 지난달 6일 새벽 2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D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서 신문 배달원 황모(55)씨의 오토바이에 실린 신문 300부(24만원 상당)를 훔쳐갔다는 것.

○~절도 등 전과 6범인 문씨는 술마시고 귀가하던 중 배달원이 자리를 비운 것을 알고 신문을 훔친 뒤 고물상 주인에게 3000원을 받고 넘겼는데, 황씨는 도난당한 신문도 문제지만, 훔쳐간 사고로 인한 구독자들의 항의에 진담을 뺐다고 하소연.

/최승환기자 srcho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아파트]					
2013타경 22698	1	동구 문림길 29-10, 2층208호 139.66㎡ [현황조서사,감정평가서는13타경19289호원용]	아파트	171,000,000	2014타경5271(중복)
2013타경 22933	1	동구 용산동 147-1 호반아파트 1층 112호 59.04㎡	아파트	74,000,000	
2013타경 23417	1	서구 금화로115번길 9, 201동 10층 1007호 [금호동,한국아파트] 99.98㎡	아파트	134,000,000	
2013타경 25321	1	북구 신안동 351-11, 1동 7층709호 59.37㎡	아파트	81,000,000	
2013타경 25475	1	북구 문암동 1051-1 미라보아파트 102동 6층 607호 84.915㎡	아파트	120,000,000	
2013타경 25826	1	북구 설죽로 600, 103동 16층 1604호 [일곡동,산호아파트] 99.99㎡	아파트	190,000,000	
2013타경 25963	1	남구 진월동 249 대주아파트 101동 1층 102호 117.80㎡	아파트	173,000,000	
2013타경 26843	1	서구 화정동 857, 106동 4층406호 49.22㎡	아파트	82,000,000	
2013타경 27990	1	서구 상무누리로 33, 103동 3층 302호 [지평동,갤러리303] 152.23㎡	아파트	410,000,000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13타경 25703	1	광산구 송정동 688-1, 331㎡ [공유자집광철 대지분9분의2전부] 광산구 송도로323-4, 67.69㎡ [목욕1과지분 100%] 제시의 창고 1.5㎡ [제시외건물포함]	대	36,292,880	일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제한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18989	1	나주시 불향면 용전리 528, 357㎡ [현황전]	대	7,1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산66-40, 119㎡ [현황죽전]	임야	1,428,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2013타경 22919	1	장성군 동하면 남산리 929-7, 2272㎡ [공유자집재규지분3분의1전부] 동소 929-8, 795㎡ [목욕1과지분동일]	대	16,357,28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3타경 23172	1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509-3, 3847㎡ [현황전]	대	45,853,6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23325	1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619, 5649㎡	과수원	131,913,000	일괄매각,농지취득
2013타경 24144	1	북구 각화동 505-14, 431.2㎡	대	689,920,000	특차격증명요
2013타경 24458	1	담양군 남면 연천리 55-20, 81㎡ [공유자원생태지분2분의1전부] 수목포함매각	대	2,916,000	공유자우선매수권
	2	동소 55-5, 432㎡ [현황대지]	대	40,763,000	행사제한
	3	동소 55-8, 7㎡ [현황대지]	대	40,763,000	일괄매각,목욕2매각제외주차장소재,수목포함매각
2013타경 25062	1	나주시 문평면 오룡리 215-1, 3712㎡ [공유자최경언지분3분의1전부] [분묘수기소재,분묘기지광성임여지있음]	임야	9,032,500	공유자우선매수권
2013타경 26140	1	영광군 병성면 방전리 111-2, 863㎡ [분묘수기소재,분묘기지광성임여지있음]	전	9,032,500	행사제한,매각제외분묘하수소제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3타경 23677	1	광산구 송정로30번길 14, 221.73㎡ 제시의점포동53, 1㎡ [다함력있는상가임차인있음]	상업용소매점	62,593,800	제시외건물포함
	2	동구 학동 103-10, 119㎡	대	62,593,800	
2013타경 27242	1	동구 양림로119번길 9-5, 1층60.04㎡ 2층60.86㎡ 3층48.28㎡ [1-3층각여관] 4층47.44㎡ [주목] 지하실 창고 40.14㎡	여관,주목시설	124,925,600	일괄매각,임대차관계불분명
[기타]					
2013타경 22490	1	나주시 산포면 통정리 343-2, 870㎡	창고용지	817,808,880	일괄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2	동소 944-2, 902㎡	창고용지	817,808,880	
	3	동소 945-3, 393㎡	창고용지		
	4	동소 941-3, 754㎡	창고용지		
	5	동소 941-12, 116㎡	창고용지		
	6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154-6, 가동용 사무실 [창고] 196.76㎡	사무실		
	7	동소 154-6, 나동용 450㎡	창고		
2013타경 23172	2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92-10, 가동 123, 24㎡ 나동 123, 24㎡ 부속건물 식물관련시설 35.55㎡ 제시의 버섯재배사 등 131.8㎡	식물관련시설	65,282,100	제시외건물포함,지은창고외동매각제외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인권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매각 기일 : 2014. 2. 27. [목] 10:00
- 매각 결정 기일 : 2014. 3. 6. [목] 16:00
- 매각 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 매각 방법
 - 입찰방에 비치된 기일입찰요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용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방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가매각과 1회 [10바운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입찰가격을 2배 또는 3배를 준비하여 1회 최고가매각가격을 제출한 문서[입찰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 2번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서와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방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입찰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입찰의 기일과 가격으로 입찰한 서류를 최고가매수인권으로 정하고, 최고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번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로만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 최고가매수인권과 자동매수인권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보증금의 입찰결과가 총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매각허가 결정이 되고 매각결정일 당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결정을 실시합니다. 다만, 매각허가일로 지정된 3월연까지 지정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로 유출하며, 따라서 매각권이 실시하지 아니됩니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의 지방과세서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합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합인서를 첨부하고, 국민주세청과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합니다.
 - 매각대금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소지자 또는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신통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지분상권 등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입찰방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입찰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입찰의 기일과 가격으로 입찰한 서류를 최고가매수인권으로 정하고, 최고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번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로만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방에 비치된 기일입찰요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용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방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권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은 매각기일 전에 매각신청이 허가되거나 집합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산예에 응모하는 물건의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속행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라방을 게시한 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결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결과정보검색]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여야 하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공판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결과와 공고나 법원에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2. 1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